

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2022년 4월)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말레이시아 닭고기 공급 부족 때문에 냉동 닭고기 4,500톤 수입

- 농업 및 식품 산업부 차관 다희 세리 아흐마드 함자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한 이동 통제 명령이 완화되며 경제 부문이 재개된 후 호텔, 레스토랑, 요식업 부분에 대한 치킨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고 설명
- 의회에서 열린 질의 응답에서 정부가 기업에게 냉동 닭고기 10,000톤의 수입을 허용했으며, 냉동 닭고기 4,500톤 수입했다고 설명
- 말레이시아 닭고기 소비량은 하루 3,768톤(209만 마리), 월간 113,220톤(6,290만 마리)
- 수의학 서비스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닭 생산량은 6,110만 마리로, 닭 소비량은 6,290만 마리로, 매일 180만 마리 (3,245톤) 공급 부족 때문에 냉동 닭고기를 수입함.
- 닭고기 공급 부족은 닭고기 사료 가격 상승으로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양계 업체가 생산량을 줄이고 있음
- 닭 사료 비용은 생산비용의 70%이며, 닭 사료에 사용되는 옥수수과 대두박의 가격이 최근 2년동안 각각 110.00%와 83.45%증가함.
- 2020년 1월과 2022년 3월간 옥수수 가격은 톤당 910RM(263,900원)에서 1,920RM(556,800원)으로, 대두박의 가격은 1,673.50RM(485,315원)에서 3,070RM(890,300원)으로 인상
- 정부는 현지수요 충족을 위해 2021년 12월부터 5월 까지 36개 기업에 냉동 닭고기를 수입할수 있도록 허가 및 기간을 연장함.
- 정부는 양계업계에 528.52M RM(1530억원)의 보조금을 제공하였음.
(닭고기 KG당 0.6RM, 계란은 개당 0.05RM의 보조금을 제공)

시사점

- 정부는 양계업계에 보조금 지급과 소비자에게는 한시적 냉동 닭고기 수입 조치로 이 상황을 극복하는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 하였으나, 자체 생산량 증가는 시간이 필요함

* 출처 : 2022년 3월 21일, The Star

2. 말레이시아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감염 돼지 1000마리 도살

- 페락주 농업 및 식품 산업 위원회 의장 라즈만 자카리아는 이 질병이 3월 27일 페락주 히리르의 상업용 양돈농장에서 처음 보고 되었다고 발표
- 이포 수의학 연구소의 실시간 PCR 검사를 통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감염 사실 확인
- 페락주는 4월 4일 지역내 3개 양돈 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에 대응하여, 감염지역내 질병 통제 및 근절 명령을 시행
- 감염지역내 돼지나 사체를 감염 지역 안팎으로 옮기는 것 허용하지 않음
- 감염지역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다른 6곳의 양돈 농장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사례가 확인 되었으며, 추가 검사 및 샘플링을 위해 격리함
- 현재까지 페락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 990마리를 도살함
- 이 질병은 경제적 중요성의 질병이며,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감염후 2-10일 이내에 죽음
- 감염된 돼지는 귀,뒤,복부,가슴 및 다리에 임상 징후가 나타나며, ASF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백신은 없다고 발표
- 이 질병이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며, 인간을 감염시키지 않는다고 함
- 정부에서는 감염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페락주 모든 95개 상업용 양돈 농장에서 모니터링, 검사 및 샘플링을 수행할 것이라고 함
- 페락주의 모든 상업 양돈 농가는 ASF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시설 내에서 엄격한 생물학적 보안 통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
- 페락주 농업 및 식품 산업 위원회 의장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1953년 동물법(2006년 개정, 법률 647)의 31조에 따라 공고된 보고 가능한 질병으로, 동물이나 가축이 감염되었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모든 소유자나 책임자는 즉시 수의과에 신고 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25,000RM (73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발표

시사점

- 말레이시아는 2021년 12월을 기점으로 말라카, 파항, 페락, 네거리 쉰빌란, 사바, 사라왁등 전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빠르게 감염 되며 확산 되고 있는 것은 방역 실패 이며, 당장 감염지역내 질병 통제 및 근절 명령을 전지역에 시행 해야함
- 돼지고기 수급이 불안정으로 당분간 가격 상승이 불가피 할것으로 예상됨

* 출처 : 2022년 4월 13일, malay mail

3. 말레이시아 페낭 소비자협회는 정부에 할랄/하람법 도입촉구함

- 페낭 소비자협회(CAP)는 생산자들이 식품 라벨을 더 책임감 있게 표시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당국에 할랄 하람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
- 페낭 소비자협회(CAP)의 모히든 압둘 카더 대표는 현재 제품의 할랄 상태를 확인하고 입증 해야 하는 부담이 소비자 에게 있다고 말함.
- 할랄 로고의 남용과 관련된 사건들이 종종 보고 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최악의 사건인 "육류 밀수 카르텔" (이슬람 관습에 따라 도축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은 소고기를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 세관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카르텔) 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카르텔은 정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중국, 우크라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냉동 고기를 수입한 후 조호주에서 재포장 했고, 일부 제품에는 캥거루와 말고기가 포함되어 있어 할랄 소고기와 혼합되어 40년동안 말레이시아 시장에 판매되어 이슬람 신앙에 신성 모독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상기 시킴.
- 이러한 법안이 말레이시아를 세계에서 가장 큰 할랄 제품 생산국중 하나가 될수 있고 "하람(HARAM)"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대해 더 잘 이해 할수 있도록 기존 법령개정요구.
- "식품법상 식품표시에 관한 법령 개정" 요청해 라벨에 하람 성분이 표기되도록 요청, 무슬림 소비자들이 하람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과 제품을 구분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할랄 공급망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독과 집행이 될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음.
- 페낭 소비자협회(CAP) 다음과 같은것을 정부에 요청함.
 - (1) 할랄 하람법 도입 및 할랄 인증 절차의 개선
 - (2) 육류 밀수 카르텔 스캔들 이후 수급 조달등 검토
 - (3) 육류 밀수 카르텔을 전담으로 다루기 위한 왕립 조사 위원회(RCI)를 설립

시사점

- 2020년 12월 육류 카르텔 적발 이후 후속 대책이 국민들 에게 홍보 및 이해가 부족하여, 불만이 증가하고, 지속적인 육류 밀수가 되고 있어, 소비자 단체의 할랄/하람법 도입 운동으로 촉발되었음

* 출처 : 2022년 3월 16일, NEW STRAITS TIMES

4. 식량 안보는 국가 안보의 문제 ("국가 식품 정책 조치 계획 2021-2025"시행)

- 말레이시아 세계 식량 안보지수(GFSI)는 113개국 중 39위로 식량 부족 국가임
- 말레이시아 는 80만ha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급 자족 할수 없음
- 말레이시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8위,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기록
- 유엔 세계 식량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그동안 겪지 못한 농업 위기를 창출하고 있음을 경고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세계 및 공급량의 30%, 옥수수 생산량의 20%를 생산하고, 러시아와 동맹국인 벨로루시도 비료로 사용되는 세계 3대 칼륨 생산국임
- 농업에 대한 전쟁의 영향은 치솟는 가격뿐 아니라 세계가 기근, 국가의 불안정화 및 대량 이주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유엔 세계 식량 계획(WFP)에 경고
- 세계 식량 공급망은 전쟁이 발발한 2월 이전에도 2년간의 코로나 사태와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심각해졌음
- 공급망의 혼란은 운송 비용과 상품가격을 상승시켰으며, 전 세계의 기아와 빈곤을 악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말레이시아에서는 소비자 가격지수(CPI)는 전년 2월 122.5%대비 2.7%오른 125.2%증가
- 말레이시아 농업 부문은 GDP의 7% (2019년 수치)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기본적인 식량 생산을 자급할수 없으므로 식량안보 문제는 국가 안보문제로 인식
- 말레이시아는 2021년 12월 세기의 홍수가 발생하여 농식품 분야에서 6700만 RM (194억원)이 손실이 났으며, 이는 지구온난화로 홍수가 점점 일반화 될것이라는 경고로 긴박함이 가중되고 있고, 이러한 자연재해의 비용과 식량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해 질것으로 예상
- "국가 식품 정책 조치 계획 2021-2025"는 디지털 변환에 중점을 두어 미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책

시사점

- 국가 식품 정책 조치 계획 2021-2025의 목표는 농식품 벨루체인의 식량 안보 위기와 농식품 공급 중단을 완화하고 관리할 준비가 되어있는 탄력적이고 포괄적이며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부문을 이루는 것이므로 정부의 실행 의지가 중요함

* 출처 : 2022년 4월 2일, NEW Straits Times

5. 말레이시아 사바 주정부와 일본은 농업, 제조 및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 모색

- 말레이시아 주재 일본 대사 타카하시 카수히코는 일본과 사바주는 농업, 제조업, 에너지 분야의 협력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
- 대사는 사바주지사와 양국 경제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사바가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 할수 있는 기회와 방안에 대해 논의 함.
- 대사는 일본 투자자들에게 사바에 대한 투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사바 주지사에게 약속함
- 또한 말레이시아의 LEP(Look Policy) 동방정책 40주년과 이정책이 말레이시아인 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함.
- LEP로 일본에서 공부하거나 훈련을 받은 말레이시아인은 지난 40년간 26,000명으로, 이들은 말레이시아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고 설명
- 현재 1,500개의 일본 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바와 사라왁주에는 약 60개 기업(440명)이 있고, 이는 LEP로 인한 일본어를 하는 말레이시아인이 있어 일본 기업이 말레이시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도록 유치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함.
- LEP(동방정책) 40주년 기념일은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 시키기 위해 논의 하는 기회 가 될것이라함.
- 일본은 국경이 개방되면 말레이시아 여행자들의 교류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2019년 40만명의 일본인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였고, 50만명의 말레이시아인이 일본을 방문 하였으며, 도쿄 올림픽을 준비 하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관광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함.
- 말레이시아 대사로 취임후 첫 사바 방문에서 특히 농업, 제조, 에너지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과 사바주와 협력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함.

시사점

- 동방정책이 일본 및 한국을 대상으로 배우자라는 뜻으로 확대하여, 정책 보완이 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 분야를 선정 확대 해 나가야 한다.
-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의 역할과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함

* 출처 : 2022년 4월 10일, Borneo Post

- KLIA 공항에서 말레이시아 검역 검사국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일명 ASF 바이러스를 보유한 돼지고기 소시지를 압류함.



- 말레이시아 검역 검사국(MAQIS)은 성명을 통해 4월 6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KLIA)에서 중국인 남성의 휴대 수화물에서 무게 10KG, 350RM(1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소시지를 압류.
- 수의 공중 보건 연구소는 돼지고기 소시지에서 여러 샘플을 테스트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확인함.
- 이번 검사는 양돈 산업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행 되었다고 밝힘.
-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며, 쉽게 퍼지므로 짧은 시간에 양돈 산업을 무력화 시킬수 있을것이라 경고함.

시사점

- 말레이시아 전 지역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빠르게 확산 되고 있으며, 대응책으로 반입 육류에 대한 선별 검사 및 승객이 휴대가방에 제품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점은, 향후 돼지고기 제품의 대 말레이시아 수출시 사전 검사 강화 필요

* 출처 : 2022년 4월 6일, The Star

1. 포트 클랑에서 할랄 인증 없는 냉동 버팔로 28톤 압류



- 2022년 3월 7일, 포트 클랑에서 말레이시아 슬랑고주 검역 검사국에 의해서 인도산 냉동 버팔로 소고기 28톤(1,120상자)을 압류 하였음.
- 조사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냉동 버팔로 소고기 28톤을 담은 컨테이너를 수입하면서, 할랄 로고를 표시 하지 않는등 수입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음.
- 슬랑고주 검역 검사국은 성명을 통해 322,565RM (9천 4백만원) 가치가 있는 냉동 버팔로 소고기 1,120상자를 추가 조사를 위해 모두 압수 했다고 밝힘.
- 또한 허가 조건을 준수 하지 않은자는 2011년 말레이시아 검역 검사 서비스법 제 15조 (1)항에 의거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00,000RM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한다고함.
- 검역 검사국은 말레이시아에 들어오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 국내 진입 지점에서 지속적인 감시 및 점검을 할 계획 이라고함.
- 이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물, 동물, 어류, 농산물 등 정해진 조건과 규정을 준수하여, 질병 및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발표함

시사점

- 20년 12월 "육류 밀수 카르텔" 의 조치 미흡으로 밀수가 다시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단체 등에서 정부에 할랄/하람법 도입이 촉발 되고 있으며, 향후 대책으로 정부는 육류 검역 검사 및 절차가 강화될 것임

* 출처 : 2022년 4월 7일, The Rayat post

1.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가입 지지

- 말레이시아 모하메드 아즈민 알리 선임장관 겸 국제 통상 산업부 장관과 대한민국 산업 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 교섭본부장이 4월 18일 화상 회담 개최
-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지지 선언
- 양측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CPTPP)과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IPEP)등 주요 경제 통상 현안 논의
-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말레이시아 측에 향후 CPTPP 가입 신청 시 적극 관심과 지지를 당부 하였고, 아즈민 장관은 한국의 가입 신청을 환영한다고 답했으며, 말레이시아 CPTPP 비준 관련 동향 공유
- 양측은 통상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인도 태평양 역내 협력을 강화하고 실물 경제 전반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공감
- 여한구 본부장은 IPEP가 경제 안보 관점에서 역내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 입장 밝힘
- 한국측은 공급망 주요 협력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핵심 광물 및 소재 분야 "공급망 연대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양국 간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를 강조
- 현재 까지 11개국중 7개국(말레이시아,캐나다,호주,베트남,뉴질랜드,브루나이,멕시코)이 한국의 회원 가입 추진을 지지 표명 하였고, 4개국(일본,싱가폴,칠레,페루)은 아직 지지표명을 하지 않고 있음

시사점

-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 전기차 배터리 재생 에너지 기업과 함께 공급망 청정 에너지 탈탄소 등 IPEP에서 다루는 분야에서 추가적인 협력이 기대됨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발효를 계기로 상호 협력해 양국 기업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및 기후변화 등에 공동 대응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출처 : 2022년 4월 18일, The Malaysian Reserve

2. 말레이시아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발효

- 말레이시아는 3월 18일, 가입국 15개국 중 12번째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발효
- RCEP는 역내 인구와 국내 총생산(GDP) 29조 7000억으로 세계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임
- 관세철폐와 기존 자유 무역 협정(FTA) 규율이 통일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에서도 수출 확대와 공급 체인 강화 기대
- RCEP는 관세철폐, 지적 재산권 등의 통일적 규율에 따라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협정
- RCEP는 지적 재산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디지털화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임
- RCEP는 기존 양자 및 다자 무역 협정을 개선하여, 회원들 간의 무역을 4,280억 달러 증가 시킬 것으로 예상
- RCEP 가입으로 말레이시아 기업은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고부가 가치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취해야 할 조치에는 말레이시아를 지역 허브로 포지셔닝하고, 중소 기업의 참여를 늘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포함됨
- 세계은행의 2월, RCEP의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수출 증가율은 관세 철폐만 일 경우는 0.1%, 비관세 조치 경감이 더해진 경우는 1.6%, 원산지 규정 적용이 더해진 경우는 2.7%가 될 전망
- 다만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미 했을 경우는 5.6%로 뛰어 올라, 베트남(11.4%), 일본(8.9%), 필리핀(8.5%), 캄보디아(6.5%)의 뒤를 잇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RCEP 참여 15개국(아세안 10개국과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비아세안 5개국) 가운데 12개국은 발효가 완료됐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미얀마등 3개국의 발효가 남았음

시사점

- RCEP가 아세안 주요 무역 파트너와 긴밀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RCEP의 일부가 되는 것은 전략적인 선택 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음
- RCEP를 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행 과정에서 기업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제기 해결해 나가야 함

* 출처 : 2022년 3월 18일, 아주경제/ 2022년 4월 20일, NEW STRAITS TIMES